세무를 보는 지혜로운 눈
세무법인 | 혜안 慧眼 |

기독일보

VISION 2035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기업 S-OIL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39-8119 제 3141호

거룩한방파제, 11월 13일 낙태약·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 개최

청와대 앞 집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추진…
언론설명회서 성명서·준비 계획 공개



참석자들이 설명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박한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거룩한방파제가 오는 11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낙태약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신교를 비롯해 천주교·불교·유교계 인사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안전, 신앙·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룩한방파제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회예배에 이어 실행위원회 회의와 기독언론인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민대회 준비 상황과 성명서 내용을 살피고, 위원 추가 선출과 2027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개회예배에서는 주요셉 목사가 대표기도를 드리고 박한수 목사가 설교했다. 박 목사는 개인의 이름이나 직책보다 공동의 사명을 앞세워야 한다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순서를 맡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공동의 뜻을 존중하고, 사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신앙적 사명에 집중하며 겸손하게 연합할 것도 당부했다.

◈태아 생명·여성 안전 보호 위한 대책 촉구

예배 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김인영 장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낙태약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관련 정책·입법의 재검토와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최 측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를 거론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함께 고려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과정의 진료·응급 대응 체계와 의료인의 책임, 양심의 자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와 태아를 함께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신앙·양심·표현·교육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가르침과 의견 표명, 종교기관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성별정정과 동성 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에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계 인사 참여 추진… 연합기도회 이어 국민대회

주최 측은 이어 11월 13일 국민대회의 구성과 진행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8월 국회 앞 집회가 개신교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열렸다면, 이번 대회는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 폭을 넓혀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대회는 청와대 사랑채 옆 효자로 일대에서 약 3000명의 참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낮 12시 30분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1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오후 2시 통합 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신교뿐 아니라 천주교·불교·유교계 인사와 전문가, 청년, 학부모 등이 발언하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종교계 연대 확대의 기대 효과와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주최 측은 교계의 입장 표명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대회 이후 청원서 등을 청와대에 민원으로 제출하고 대화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임신중지 관련 법률 정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최 측은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정리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별도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여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교육·기도회 확대… 내년 국제대회 구상

2027년 사업계획으로는 연합기도회와 지역별 순회기도회, 낙태약·차별금지법 관련 세미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관련 쟁점을 이해하고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준비와 참여가 일부 교회에 집중되지 않도록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에는 기수단 참여 교회 300곳 확보를 목표로 삼고, 참여 교회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생명·가정·효 국제대회'도 내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50개국 참여를 구상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와 분과별 논의, 집회와 행진, 교회 방문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다니엘 최 기자

기감, 제37회 총회 이튿날 신임 감독 이·취임식 개최



신임 감독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기감)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제37회 총회를 개회한 가운데, 총회 둘째 날인 30일 국내외 12개 연회 신임 감독들의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임기 2년에 돌입하는 신임 감독들은 국내외 각 연회를 이끌며 교단 발전과 영적 갱신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와 함께 진행된 이·취임식에서는 교계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신임 감독들에게 엄중한 책임감과 낮은 자세를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이철 제29대 감독회장은 "감독은 성도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교회 내 화해를 이뤄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분쟁을 부추기는 감독은 자격이 없으며, 이 모든 사역의 동력은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는 성품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용대 제27대 감독회장은 "무엇보다 평신도들은 새로 선출된 감독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아낌없이 독려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임 감독들을 대표해 취임사를 발표한 전석범 남부연회 취임 감독은 "감독들이 입는 보라색 성의는 세상적인 권위의 상징이 아닌, 희생과 고난을 짊어지겠다는 십자가의 상징"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를 통해 향후 2년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이끌어갈 국내외 12개 연회 신임 감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연회 최우성 목사, 서울남연회 김한권 목사, 중부연회 박동찬 목사, 경기연회 부경환 목사, 중앙연회 장학봉 목사, 동부연회 손학균 목사, 충북연회 김광일 목사, 남부연회 전석범 목사, 충청연회 이성수 목사, 삼남연회 이원목 목사, 호남연회 이길수 목사, 미주특별연회 남강식 목사. ▶관련기사2면

노형구 기자

답콕, 홍대서 대학생 주도 마약류 예방 캠페인 개최

공연·체험·교육 결합한 할로윈 행사…
청년·시민에 안전한 축제문화 알려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답콕(DAPCOC·이사장 두상달)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DAPCOC SAFE & SOBER HALLOWEEN'을 개최했다.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이번 행사는 할로윈을 맞아 거리를 찾은 청년과 시민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축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답콕은 공연과 체험, 예방교육을 결합해 시민들이 일상적인 문화공간에서 마약류 예방 메시지를 접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학생들이 예방활동의 주체로 참여해 또래 청년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운영된 캠페인 부스에서는 마약류 예방 체험활동과 인식조사, 전시, 지역사회 협력기관의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민들이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과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오후 6시부터 이어진 메인 무대는 가수 공연과 마약류 예방교육, 시민 참여형 OX 퀴즈, DJ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피아노 연주를 활용한 'Drug-Free Message' 순서에서는 'NO DRUGS, SOBER IS COOL!'이라는 행사 메시지를 음악과 함께 전달했다.

개회사는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장이 맡았다. 최은하 마포구의회 의장과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정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지역사회 봉사위원장은 현장 축사를 전했다. 김영배 국회의원과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 대표, 장세호 한국CBMC 회장, 가수 범키, 그룹 올아워즈는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답콕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대학생 주도의 참여형 예방활동을 대학 캠퍼스 밖 지역사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자주 찾는 문화공간과 지역 축제에서 예방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기관들과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답콕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와 중독 예방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청소년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체험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장요한 기자

1일은 '박해 교회 위한 국제기도의 날' » 7면

조혜련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 24면

